

## 丁玲문학의 진폭 (1)

— 丁玲의 좌익으로의 전향을 전후하여 —

김 미 정\*

— <目次> —

I. 들어가는 글	1. <1930年·春·上海>
II. 丁玲문학의 자리 —	(之一)(之二)
五四 개인주의의 막다른 길	2. <從夜晚到天亮>에서
III. 혁명에 대한 접근방식	<某夜>로
IV. 나오는 글	

### I. 들어가는 글

丁玲(1904~1986년)은 여러 모로 주목을 끌었던 작가이다. 그녀의 삶도 그렇고, 그녀의 문학도 그렇다. 현대 중국 사회에서 굽직한 정치적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연루되는 그녀의 사건 많은 일생은 문학보다 오히려 그녀의 삶의 역정에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믿어지는 그녀의 작품은 때로는 작가로서 그녀를 최정상의 위치에 올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타락한 소부르조아의 돌이킬 수 없는 증거물로 제시되면서 대대적인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丁玲의 문학은 분명히 그녀의 삶과 깊숙이 연관지어져 이해됐다. “丁玲의 삶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삶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로 문학으로 변형되었다는 점<sup>1)</sup>이라는 지적은 丁玲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였다. 그러나 이런 기본 전제는 종종 단순하고 도식적으로 해석되었다. 때문에 각각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丁玲문학, 특히 丁玲문학의 전환에 대해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낳았다.

우선 좌익문학의 입장에서 볼 때, 五四운동의 세례를 받아 자아찾기의 고뇌를 겪어낸 ‘莎菲’의 반역적 절규에서부터 노농대중의 혁명적 에너지와 삶의 충실성을 그리는 사회주의문학으로의 전환은 정당한 역사적 발전법칙에 의한 필연적 선택으로 해석되었다. 그들은 丁玲의 변신이 모두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丁玲은 공식 전향 이전부터 이미 胡也頻과 더불어 노동운동과 사회혁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胡也頻 처형 사건 이후 스스로 공산당에 가입하여 당원작가가 되었으며, 체포 구금의 南京시기를 거치며 한때 ‘변절’의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그 사이에도 국민당에 부합되는 작품은 일체 써본적 없는 점, 그리고 스스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延安 공산당 근거지로 찾아갔고, 延安에서 여의치 않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당원작가로서의 기본자세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진정한 인민작가가 되고자 노력한 점 등이 입론의 근거가 된다. 丁玲문학에 대한 馮雪峰의 평론과 宗誠의 서술<sup>2)</sup>이 이런 입장을 대표한다.

이에 반해 좌익문학에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丁玲의 좌로의 전향은 극우세력의 탄압에 의한 개인적인 상처(남편 胡也頻의 죽음)라는 지극히 사적인 동기에 의한 불완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녀의 좌익문학으로의 전향은 문학과 정치선전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치기 어린 젊은 작가의 비이성적인 탈출행위였기 때문에 대단히 불완전한 것이

1) Yi-tsi M. Feuerwerker: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life: Aspects of the Writer's Role in Ding Ling>, 1977.

2) 何丹仁(馮雪峰): <關於新的小說的誕生—評丁玲的‘水’>, 1932年 《北斗》第2卷1期, 《丁玲研究資料》246-251쪽, 馮雪峰: <從‘夢珂’到‘夜’>, 1948年 《中國作家》第1卷2期, 《丁玲研究資料》292-300쪽.  
宗誠, 《風雨人生—丁玲傳》 등 참고.

있고, 끝내 지식인 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현실비판이라는 문학의 본원적 의미를 저버린 비극적인 것이었다는 시각이다. 이들은 섬세한 심리묘사와 대담한 성분능에 대한 개인의 갈등을 다루는 묘사에서 작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줬던 丁玲이 어느 날 거친 어조로 농민의 폭동과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기계적인 작품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丁玲문학은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한다. 이들에게 있어 丁玲문학의 의의는 초기 작품에서 보이는 강렬한 자아의식과 개성해방의 사상계몽적 의의에 국한된다. 丁玲에 대한 夏志清과 周芬娜<sup>3)</sup>의 평가가 이런 입장을 대표한다.

이런 두 가지 시각은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丁玲의 문학과 행보는 ‘문학과 정치의 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듯하지만, 평자의 입사각에 따라 무수히 다양한 현상과 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동반한다. 그만큼 丁玲과 丁玲문학의 전환에는 지나치게 극적이라 사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丁玲은 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그 사실감을 확인하고 채워가는 것은 丁玲이 아니라 독자와 연구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기했던 “작가의 삶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문학으로 변형된다”는 전제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대목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라는 말일 것이다. 모든 문학에는 기본적으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작가의 삶과 경험이 ‘변형’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丁玲문학의 특징이라면 그런 변형이 대단히 지속적이고 의식적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丁玲문학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변형’까지의 복잡다단한 정서적 인지적 행위적 요소와 재구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자면, 위에서 소개한 丁玲의 전향이나 丁玲문학의 전환에 대한 논자들의 서술은 양측 모두 개성해방과 자아탐구의五四적 지식인작가에서 사회주의적 지식인작가로의 전환 과정의 복잡한 내면과 모순, 그 모순들을 풀어가는 방식, 그리고 그러한 모순 자체가 함장하는 의미들을 지나치게 단순화 도식

3) 夏志清 著: 《中國現代小說史》 280-288쪽, 周芬娜: 《丁玲與中共文學》 등 참조.

화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본 논문은 丁玲의 문학작품을 통하여 ‘莎菲’로 대표되는 ‘개인’의 가치와 의미에 눈뜬 근대적 개인이 사회혁명이란 집단적 윤리에 접근해가는 과정과 방식의 여러 측면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丁玲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성과나 구체적인 시각을 제공하려 함이 아니라, 한 지식인작가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모종의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배후에 놓인 무수한 갈등과 모순들이 재배열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그러한 재배열이 지니는 개인적 의의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기 위함이다. 그와 함께 재배열에 간여하는 문화적 역사적 요소들과의 상호 침투와 상호 긴장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丁玲의 좌(左)로의 전향이 더 이상 큰 호소력을 지니지 않는 이 시대에, 작가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과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재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II. 丁玲문학의 자리 - 五四 개인주의의 막다른 길

丁玲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夢珂>와 <莎菲女士的日記>(1927년)를 써서 단숨에 문단의 명성을 얻었다. 五四운동의 사상적 세례를 받은 도시의 모던 걸, 夢珂와 莎菲의 고민과 방황은 茅盾이 지적한대로 그 자체로 “시대의 낙인이 찍힌” “마음으로 시대 고민의 상처를 짊어진 젊은 여성의 반역적 절규”<sup>4)</sup>였다. 그런데 두 작품의 구조를 보면 작품 주인공의 극심한 갈등은 五四 신문화운동 첫 세대의 주요 주제였던 봉건예교/계몽적 지식인의 사회적 심리적 대결상황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夢珂>는 시골에서 대도시 上海로 나온 퇴직 태수의 딸인 순진한 夢珂가 근대적 학교와 신식 중산층 가정(고모집) 내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성적 멸시에 반발하여 더욱 “순육감적인” 사회의 여배우로 변신하는

4) 茅盾: <女作家丁玲> 1933.7 《小說月報》 제2호, 《丁玲研究資料》 253쪽.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자의식에 눈떴지만 보이지 않는 여성억압과 물질적 인간관계의 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아실현을 갈망하여 여배우가 되고자 했지만 夢珂는 결국 사람들의 “욕망”과 “욕망 속의 천박한 쾌감”을 만족시키는 근대사회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 점에서 夢珂는 가정에서 뛰어나와 사회에서 정당한 지위를 얻고자하는 신식여성이지만 그에 따르는 마땅한 출로를 찾지 못하고 “곧장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지는”<sup>5)</sup> 무너진 신여성이다.

그렇다면 夢珂의 고민의 소재는 봉건적인 사회분위기 또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에게 내재된 봉건적 예교의 습속과 가치관만이 아니다. 물론 자신에게 스민 봉건성을 떨치지 못해 혼란이 증폭되는 양상은 보이지만 夢珂는 이미 아버지가 원했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결혼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신식여성이었다. 夢珂를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근대적 학교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성적 희롱과 그런 일을 그저 그렇게 넘기는 학교 내 무심한 인간관계였고, 신식 중산가정 사촌과 친지들의 천박한 애정과 허위적 삶의 태도였으며 자아찾기를 위해 뛰어든 여배우의 삶도 결국은 “길거리에서 서성이든 매춘부와 다를 바 없는”<sup>6)</sup> 또다른 노예생활이라는 점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근대 사회문화 속에 자리 잡은 파편화된 인간관계, 속물적인 개인 군상, 근대 사회에도 여전한 여성 비하의 분위기 속에서 욕망의 대상으로 상품화된 여성 등 근대적 사회 속의 개인과 여성의 실제 상황에 관한 의문과 힐난이었다. 夢珂는 봉건예교의 속박에서부터 자본주의적 성차별로, 남성의 소유물에서 色情을 파는 자본주의적 성상품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의 초기 대표작 <莎菲女士의日記>에서도 지속된다. 민감하고 고독하고 자의식 강하면서 조금 히스테릭한 폐병환자 莎菲의 고민과 방황이 집중된 곳은 그녀와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치 없는 사랑에 매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회의이다. 莎菲는 늘

5) 이상 丁玲: <夢珂>, 《丁玲文集, 2卷》 각각 44, 44, 36쪽.

6) 丁玲: <夢珂>, 《丁玲文集, 2卷》 43쪽.

주위 친구들로부터 “진정한 이해”를 갈구했지만, 선량하고 상식적인 그녀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녀조차도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12월29일, 1월3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개인과 개인의, 개인과 사회의 진정한 내적 소통의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莎菲 앞에 凌吉士가 나타나고, 莎菲는 凌吉士의 외모에 매혹되어 그와 함께 자아의 욕망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1월1일, 1월10일). 그렇지만 凌吉士는 지극히 세속적인 영혼과 천박한 욕망의 소유자일 뿐(3월13일, 3월21일)이다. 이에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긍정과 분출로 표현되던 莎菲의 자아찾기와 자아실현은 막다른 길에 도달한다.

莎菲의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과감한 자아고백이 봉건적인 금욕적 사회 분위기에서 해방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 없이 五四 사상 계몽운동 이후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탐색에 기인한다. 五四 흐름 속에서 “모든 인간의 생활 본능은 모두 아름답고 선한 것이며, 마땅히 완전히 만족되어야 한다. 모든 인성에 위배되는 부자연한 습관과 제도는 마땅히 배척되고 고쳐져야 한다”<sup>7)</sup>는 파격적 선언은 인간의 자연본능을 그 자체로 존재할 가치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품격과 선한 도덕성까지 갖춘 것으로 인식하였다. 인간의 생존본능과 욕망에 대한 긍정은 모든 감성적 생의 자유와 환희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가며, 五四시기 주된 비판의 표적이었던 전통적 宋明 理學의 극단적인 이성적 금욕주의를 탈피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五四 시기 자연인성론의 실제적 역할은 낭만적 색채 속에서 유교의 도학적 전통을 비판하는 것이었고, 莎菲의 성적 욕망을 둘러싼 갈등은 자아확립, 개성해방, 나아가 여성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丁玲에게 있어 문제는 그 이후였다. 봉건적 사회습속과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개인은 진정 자기 운명의 주체로 우뚝 서고 있는가? 욕망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근대적 개인은 합리적인 주체로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있는

7) 周作人: <人的文學> 1918, 12 《藝術與生活》

가? 莎菲는 결코 그렇지 못했다. 莎菲에게 성적 욕망은 양날의 칼이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기 인식 및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계기이기도 했지만 막상 莎菲가 발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한 타락의 징조들이었다.

〈莎菲女士的日記〉를 구조적으로 보자면 스스로 야기하는 소외와 타락과 절망의 행보에 대한 莎菲의 자의식과 그에 따른 고통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그 사이사이에 자의식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펼쳐진다. 凌吉士를 의도적으로 우롱하고, 폭음과 각혈을 하고, 멀리 떠날 것을 결심하며 “적은 바로 나 자신”<sup>8)</sup>임을 자각하는 사비에게 자의식은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개인, 이성과 감정의 충돌 속에 분열되는 자아를 확인하게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莎菲는 개인과 사회가 소통할 수 없는 자리에서 ‘生과 死’ ‘靈과 肉’ ‘理智와 感情’의 자아분열의 고통을 거쳐 스스로 “자아회멸적 감상주의”<sup>9)</sup>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莎菲의 고민이 구조적으로 실재하는 곳은 인물과 외부 환경 사이의 충돌이기 보다는, 파악할 수 없는 인물 내심의 충돌”<sup>10)</sup>이라는 지적은 莎菲에 관한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莎菲는 분명 五四식 사상계몽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의 대표자가 아니라 개성해방이 몰고온 고민과 방황, 혼란을 증명하는 근대 이후의 내면풍경에 대한 대변인이다. 봉건 습속에 대한 반대 기치로서 내세웠던 개성해방과 개인주의가 와해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문학의 개념 성립에 불가결한 요소였던 개인주의는 이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됐다. 丁玲에게도 개인주의 담론의 곤경을 뛰어넘는 길에 대한 모색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8) 丁玲: 〈莎菲女士的日記〉, 《丁玲文集, 2卷》 85쪽.

9) 梅依慈: 〈不斷變化的文藝與生活的關係〉, 《丁玲研究資料》 574쪽.

10) 賀桂梅: 〈知識分子, 革命與自我改造〉, 《中國現代文學研究總刊》 2005年 제2기.

### III. 혁명에 대한 접근방식

‘반역적 절규자’ 莎菲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사회의 예교적 억압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항하지만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갖춘 근대주체의 신화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丁玲은 방황하고 있었다. 이미 자기분열의 고민을 생생하게 토로하며 자기훼손의 자학적 심리과정을 보여줬던 丁玲이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한다면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규정문제,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문제가 될 것이다.

이 당시 丁玲이 실제 처한 상황을 살펴 보자. 일찍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세워진 上海大學 중국문학과에서 수학하며 일찌감치 사회혁명 분위기에 접했던 丁玲이지만 당시까지 丁玲은 학교의 급진적 혁명풍조에 크게 자극받거나 동화되지 않았던 듯하다. 오히려 당시 瞿秋白 茅盾과의 만남은 丁玲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丁玲이 곧바로 문학창작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던 것도 아니다. 丁玲은 시간 속에서 이러저러한 경험과 자극과 욕구를 온양시킨 뒤 글을 썼다.

반년 만에 上海大學을 그만둔 丁玲은 1924년 北京으로 가서 北京大學 진학을 생각했지만 실패했고, 해군학교에서 나와 창작에 힘쓰고 있었던 작가지망생 胡也頻, 그리고 동향 출신의 沈從文 등을 만나 나름대로 사랑과 우정의 淸苦한 생활을 영위했다. 1925년부터 시작된 胡也頻과의 동거 생활은 무척 활기찼던 것 같다. 일찌감치 문학적 재질을 드러내던 그녀는 《小說月報》에 연이어 <夢珂>(1927년) <莎菲女士的日記>(1928년) 등을 발표하여 문단에 혜성처럼 등장했고, 1928년 上海로 돌아와 胡也頻 沈從文과 짧은 시간 《人間》《紅黑》 등의 잡지를 편찬하기도 했다. 잡지 편찬 실패 후 1929년 胡也頻이 경제 사정으로 濟南으로 가서 교편을 잡기도 했지만 胡也頻이 그곳에서 학생선동죄로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1930년 두 사람은 濟南에서 탈출하다시피 上海로 돌아왔고, 돌아온 직후

인 5월 좌익작가연맹에 가입<sup>11)</sup>한다. 濟南시절부터 胡也頻의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시작됐고 이후 그의 급격한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금은 급작스러웠던 이 좌련의 가입에 대해 두 사람의 절친한 친구였던 沈從文은 무척 의외였다는 어조로, “당시 좌익문학은 이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상인들이 지배하는 잡지들은 이런 작가의 작품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곧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sup>12)</sup> 되었지만, 다른 한편 점차 두 사람은 젊은 연인의 상호 시선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사회현상과 미래의 이상에 대해 관심을 지니게”<sup>13)</sup>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濟南시절부터 혁명사상을 선전하며 자발적 정치활동에서 자신의 길을 찾지 시작했던 胡也頻은 좌련에 가입한 이후 좌련집행위원회의 위원 및 공농병문예위원회 주석 등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11월에는 제1차 강서소비에트대표대회에 대표로 피선되었으며 동시에 정식으로 중국공산당에 입당한다. 또한 틈틈이 소설을 써 장편 <광명은 우리 앞에 있다(光明在我們的前面)>를 완성하기도 한다.

濟南시절 胡也頻이 급속히 학생사회운동에 관심을 보이며 나름의 정치활동에 대단히 고무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丁玲은 胡也頻의 거침없는 행보에 그 진정성을 미심쩍어하고, 여전히 胡也頻보다 우월한 창작능력을 자신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胡也頻에게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丁玲이 胡也頻의 소설에 대해 “지나치게 개념적”이라 평하고, 그의 성향을 “좌익소아병”이라 칭했던 것이나, 胡也頻이 도도하게 프로문학을 얘기할 때 “당신 정말 다 이해하는 거예요?”라고 되물었던 일화는 丁玲이 당시 혁명문학의 관념성에 비판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11) 丁玲의 좌련가입시기에 대해서는 丁玲이 1930년으로 밝히고 있는 것에 반해 茅盾은 <女作家丁玲>에서 1931년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1930년에 임신 중이었던 丁玲이 실제적인 사회활동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일 것으로 짐작된다.

12) 沈從文: 《沈從文別集—記丁玲》 150쪽.

13) 沈從文: 《沈從文別集—記丁玲》 152쪽.

있게 한다. 이에 반해 胡也頻이 “마르크스를 이해하는 것은 무척 간단해. 우선 그를 믿고, 그와 같은 입장에 서면 돼!”<sup>14)</sup>라고 자신했다. 胡也頻의 이 당시 모습은 문학가이기 보다는 오히려 소박하고 단순하며 확신에 찬 초기 대중혁명가의 모습이다.

이 때의 丁玲은 현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혁명과 문학은 그다지 관계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혁명인가 문학인가라는 양자택일의 입장에서 “문학에서 우선 이름을 떨쳐야겠다”<sup>15)</sup>고 생각하고 있었다. 분명히 胡也頻과는 다른 선택이었고, 다른 행보였다. 이 시기 丁玲의 고민의 소재는 도시적 모던 걸이 겪는 심리적 갈등, 그 미묘한 근대적 개인주체의 방향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자기고백에서부터 어떻게 이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출로를 찾느냐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배우자인 胡也頻의 변신과 열광은 丁玲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胡也頻처럼 직접적으로 혁명에 투신하고 열광하기에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회의하고 있었지만, 개인내면 심리묘사의 막다른 길에서 무언가 새로운 출로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胡也頻을 통해 엿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좌익문학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沈從文조차 두 사람이 개인적인 연인관계의 시선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사회현상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회상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丁玲문학에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호야빈의 역할은 상당히 컸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丁玲이 이 시기 胡也頻을 보며 “그가 변했다는 것, 전진하고 또한 비약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에 찬성하고” 그 영향을 받아 “앞드려 가고 있지만” 자신 역시 “전진”하면서 “소설 <1930年 春 上海>를 썼다”<sup>16)</sup>고 자술하고 있는 부분은 주목을 요한다. 丁玲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지 그 단서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이상 丁玲: <一個眞實人的一生—記胡也頻>, 《丁玲文集, 5卷》 151-152쪽.

15) 丁玲: <一個眞實人的一生—記胡也頻>, 《丁玲文集, 5卷》 151쪽.

16) 丁玲: <一個眞實人的一生—記胡也頻>, 《丁玲文集, 5卷》 154쪽.

1. <1930年 春 上海>(之一)·(之二)

<1930년 봄 上海> 시리즈는 1930년 6월과 10월에 쓰여 졌다. 좌련에 가입한 직후, 하지만 아직 내면적인 완전한 전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어지는 시기의 丁玲의 현실진단과 내면의 충동, 갈등의 소재 및 변화하는 미래의 자아상에 대한 예측들을 짚어볼 수 있다. <1930년 봄 上海> 1,2편은 각기 다르지만 또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두 쌍의 연인들의 이야기다. 1편에는 재능있는 작가 子彬과 그의 순진한 추종자 美琳이 등장하고, 2편에는 혁명에 투신한 望微와 아름다운 모던 걸 瑪麗가 등장한다.

子彬은 작가이다. 그는 자신의 문학적 재능으로 불세출의 명작을 남기고 만민의 칭송을 받겠다는 야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는 子彬에게 子彬식 창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친구(若泉)가 나타난다. 若泉의 문제제기는 결국 ‘혁명시대 문학의 의의’ 였다.

나는 때때로 문필활동이란 완전히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네. 우리가 쓰면 누군가 읽겠지만 때가 지나면 아무런 영향도 남지 않지. 우리들은 약간의 원고료를 받는 것 외에 무슨 의의를 찾을 수 있겠나? …(중략:인용자)… 나는 지금이야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을 해왔음을 깨달았네. 우리들은 이런 청년들을 우리들의 낡은 길로 끌어들이는 것일세. 감상주의, 개인주의, 출구가 없는 불평과 비애! … 그들의 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사회와 개인적인 괴로움 사이의 관계를 보지 못한 채, 매일 같이 자신의 울분 속으로 침몰하고 있을 뿐이네. 설령 그들에게 문자를 사용하는 훈련을 시켜 약간의 문장과 詩를 쓰고, 老作家에게 칭찬을 들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또 사회에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sup>17)</sup>

若泉이 제기하는 문제는 丁玲이 자신의 창작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 丁玲이 자신의 문학의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감상주의” “개인주의”에 빠져 “사회와 개인적인 괴로움의 관계를 보지 못한다”

17) 丁玲: <1930年春上海之一>, 《丁玲文集, 2卷》 234쪽.

는 점이다. 즉 개인의 괴로움과 울분이 궁극적으로 외부의 현실, 사회와 연관되어 있고 사회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어야지!”라고 절규했던 莎菲에 비해 현재 상황을 개인 내부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丁玲이 어떻게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丁玲은 눈에 띄는 설명이 없다. 단지 당시의 분위기에 대한 대체적인 회고만이 있다.

나는 내가 살았던 이 시대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혁명시대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파란만장하고 무궁무진한 혁명시대를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필히 온 몸과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 그들(제3종인의 길을 자처한 사람들: 역자 주)은 늘상 그들의 작품은 시장이 없어 국면을 타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말은 내 자신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내가 만일 인민 속으로, 시대의 조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 문학의 생명은 일찌감치 끝났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생활의 범위가 좁아 안목이 신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머리 속으로 늘 개인의 영욕과 득실을 생각한다. 광대한 천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번뇌와 고민이 많지만 깊고 멀리 써내지 못한다.<sup>18)</sup>

위의 설명은 앞에 나온 若泉의 문제제기와 궤를 같이 한다. 한 마디로 자신의 이전 문학은 “생활의 범위가 좁고” “안목이 협소하고” “개인의 영욕”에 골몰하는 문학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문학은 혁명시대에 통용될 수 없었고, 사회적 의의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광대한 천지”, 즉 인민과 혁명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마땅히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첫째, 생활의 범위가 좁고 개인의 영욕에 골몰하는 문학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둘째, 만일 개인의 문학이 진정으로 의미가 없다면 인민과 혁명은 어떤 면에서 개인의

18) 丁玲: <我怎樣跟文學結下了‘緣分’>, 《丁玲文集, 5卷》 415-416쪽.

문학의 곤경을 깨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가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 인식에 따라 여러 갈래의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의 확립을 통한 근대성을 실현이라는 명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丁玲은 스스로 개인의 내면심리를 묘사하는 문학에 대해 파산선고를 반복하고 있다. 분명 丁玲은 개인의 내면심리 깊은 곳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왕래하는 문학이 막다른 길에 몰려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 시기 丁玲에게 중요한 것은 혼란에 빠진 자신을 재인식하는 것, 자신의 창작의 의의를 재성찰하는 것이었다. 재인식과 재성찰의 과정은 과거 자문자답형의 미묘하고 섬세한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묘사로 가능할 수 없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참고 기준이 필요했다. “혁명시대”였다는 상황에서 볼 때, 자신 밖의 사회현실이 그 기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그 현실과 자신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느냐에 놓여있다. 丁玲이 취했던 방식은 ‘글쓰기’와 ‘창작’을 통한 ‘분열된 자아에 대한 추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年 春 上海>(之一)·(之二) 두 작품에는 각각 현재 작가의 자아를 투영하는 대상과 그런 자아를 관찰하고 대답하는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난다. 子彬과 瑪麗가 丁玲이 상상하는 현재의 부정적 자아라면 美琳과 望微는 그런 자아를 관찰하고 묘사하며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또 다른 상상 속의 자아이다.

<1930年 春 上海之一>의 子彬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외부와 관계를 절연하고 자신만의 문학의 세계 속에 안주하며 명성을 구한다. 그가 구축한 문학세계는 나름대로 견고하다. 하지만 허망하다. 이 허망함이 지적될수록 子彬은 더욱 자폐적인 세계 속에 갇히고 더욱 그 안에서의 명성에 골몰한다. 문학을 통한 인정투쟁을 시도한 셈이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내부에서만 바라봤던 子彬은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막다른 길이었다. 그 막다른 길의 무력감은 결국 그를 숭배하고 그에 복종했지만 “외부와의 관계”와 “사회적인 지위”<sup>19)</sup>를 원하던 美琳을 집박

으로 끌어내고 노동자의 집회에 참가하게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의를 찾게 만든다. 美琳의 가출로 인해 子彬의 고립과 고독과 분노는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子彬은 그 순간에도 원고지를 버리지 못하고 더욱 문학에 집착한다.

이에 반해 <1930年 春 上海之二>의 瑪麗는 사랑하는 애인 望微를 찾아 上海로 돌아온 아름다운 모던 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에 두 번이나 望微로부터 도망친 적이 있다. 처음에는 그와 사랑에 빠져 그에게 굴종할까 두려워, 두 번째는 부부가 되고 엄마가 되서 자유를 빼앗길까 두려워서였다. 그녀는 자기애적 나르시즘에 빠져 있고, 젊음과 향락과 아름다움에 집착했다. 하지만 望微는 이미 변했다. 여전히 瑪麗를 사랑했지만 瑪麗와의 허망한 사랑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 현재의 정치와 경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많은 책을 탐독하며 사회에 대한 안목을 길렀고 지금은 실제 사회혁명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늘 바빴고, 瑪麗가 자신과 같은 길을 가는 동지이길 바랐다. 하지만 瑪麗는 그런 길을 원치 않았다. 瑪麗는 望微에게 혁명과 자신 중 하나를 택할 것을 통고하고 가출한다. 세 번째 이별이다. 望微는 가슴아팠지만 더 이상 瑪麗를 붙잡지 않는다. 그리고 望微는 시위에 참가한다. 望微가 체포되는 순간 瑪麗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다른 젊은 추종자와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서고 있었다. 그것을 본 望微는 “그녀는 또 행복하군! 그녀는 결국 저런 류의 인물이었어!”<sup>20)</sup>라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과 소리 높여 “타도!”를 외친다.

子彬이 문학만을 업으로 삼아 개인의 영욕과 득실에 집착하는 丁玲의 자화상이라면, 瑪麗는 이기적인 자기애에 집착하는 또다른 丁玲의 자화상이다. 瑪麗는 관습과 제도로 환원되는 애정이 결과적으로 ‘여성’으로서 자신의 상품가치를 잃게 한다고 판단하고 한사코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이다. 하지만 望微와의 사랑에 의해 그녀는 애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

19) 丁玲: <1930年 春 上海之一>, 《丁玲文集, 2卷》 246쪽.

20) 丁玲: <1930年 春 上海之二>, 《丁玲文集, 2卷》 308쪽.

다는 애정지상주의적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다. 하지만 瑪麗의 애정은 자기애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는 애정을 통해 望微를 조종하려 했고,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으려 했다. 순조롭지 못한 일상과 瑪麗의 끊임없는 물욕과 과시욕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고, 서로는 자신들의 지향과 희망이 각기 다름을 깨닫는다.

그런데 丁玲의 서술은 瑪麗를 일방적인 악녀로 몰아가지 않는다. 瑪麗는 분명 총명하며 자의식이 강한 독립적인 도시 여성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때로는 자신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최대로 활용하는 세속적인 현대 여성이지만, 또한 사랑의 실현을 위해 거침없는 그녀의 행보에는 근대적 여성주체의 영웅적인 면모까지 존재한다. 그렇지만 소설 말미 체포되는 望微의 시야에 들어온 그녀의 화려함과 소비적 향락은 이미 현실 속에서 모든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모습이다. 정당성을 상실한 瑪麗를 관찰하고 판단하고 瑪麗와 다른 길을 가는 이는 望微였다. 이는 곧 望微의 길이 丁玲의 이성적 선택임을 의미한다.

子彬의 문학지상주의와 瑪麗의 자기애적 개인주의가 美琳과 望微에 의해 부정될 때, 美琳과 望微의 시선은 줄곧 관찰자의 시각이었다. 각각 子彬과 瑪麗와 가장 절실한 부부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따라서 고전적 의미에서 일심동체라는 상징성을 지니면서—실제로는 관찰하는 자아에 의해 현실의 자아가 부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자아가 감정과 욕망 사이를 배회하고 있다면, 그것을 객관화시켜 관찰하는 자아는 이성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개인의 감정과 욕망에서부터 이성에 의한 판단과 실천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이성과 감정, 영과 육의 갈등 양상이 ‘혁명과 연애’의 대립 양상으로 치환되며 이성의 세계가 혁명의 세계로 수렴되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성과 혁명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있다. 望微와 美琳은 어떻게 이전 삶의 한계를 깨치기 시작했는가? 바로 ‘독서’<sup>21)</sup>였다. 그것도 ‘정치와 경제에 관한 독서’, 한 마디로 사회의 제반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석하

고 답하는 독서였고, 구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저작이다. 그것은 丁玲이 胡也頻의 변화를 묘사하던 상황과 일치한다. 평범한 작가지망생이었던 胡也頻을 변화시킨 것도 마르크스주의 저작에 대한 ‘독서’였다. 이들에게 ‘독서’는 단지 지식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의 일대 전환이었고, 현실사회의 고뇌와 불만을 해결을 위한 노력과 실천의 방법이었으며, 뜨거운 책임감과 도덕감의 원천이었다. 그렇다면 美琳(혹은 若泉)과 望微의 모델은 분명 胡也頻과 그의 동료들이었을 것이고, 丁玲은 그들을 통해 혁명의 세계를 엿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을 통한 이념과 당위의 세계건설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丁玲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었다. 丁玲은 스스로 변신한 혁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胡也頻의 자발적이고 극적인 변화에 놀라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 1950년에 쓰여진 글에서조차 胡也頻의 탐욕스런 독서가 과연 진정한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를 의심할만큼 냉정한 관찰자였다. “그(마르크스주의)것을 믿고, 그와 같은 입장에 서면 된다”는 胡也頻의 태도에 이성적이기 보다는 어떤 종교적 열정과 광신의 기미가 있었다면, 丁玲에게는 자신이 직접 체득하지 못한 것, 직접 이해하지 못한 것에 쉽사리 경계를 풀지 못하는 강한 자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때문에 丁玲은 자신의 변신을 독서에서 찾을 수 없었다. 丁玲 문학에 있어 생생한 현실의 감수성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성은 여전히 감정에 지상(至上)의 자리를 내주고 만다. 오히려 丁玲의 변신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자신의 문학적 한계에 대한 절감(子彬), 자기애적 개인주의의 부도덕성(瑪麗) 같은 도덕적 자기결단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丁玲은 1930년에 연애의 파국 속에서 상실한 자아를 사회운동에의 참여를 통해 복원하는 인물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도덕성과 결합

21) 물론 美琳은 스스로의 독서를 통해 子彬식 삶의 한계를 깨닫진 않는다. 美琳은 若泉을 통해 상황을 인식했고, 若泉의 변화의 주요 동기는 독서였다. <1930년 春上海之一>, 《丁玲文集, 2》 237쪽, <1930년 春上海之二>, 《丁玲文集, 2》 267쪽 참조.

된 이성적 판단과 행동에 의해 출로를 찾으려는 그녀의 노력이 문자를 통해서나마 암암리에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 2. <從夜晚到天亮>에서 <某夜>까지

胡也頻의 급작스런 죽음에 따른 丁玲의 정신적 공황과 상실의 고통은 그의 죽음 이후 20년이나 지난 뒤에 쓰여진 <一個眞實人的一一記胡也頻>에 생생하게 기록된다. 胡也頻의 체포 이후 백방으로 구명운동을 펼쳤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급기야 그의 처형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丁玲은 “나는 복수해야 한다! 불쌍한 也頻을 위하여, 그와 함께 죽은 烈士들을 위하여.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창가로 가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푸르고 흰구름이 떠가고 있었다”<sup>22)</sup>라고 쓰고 있다. 비통함, 회한, 상실감 속에 ‘복수’를 위해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하는 당위감과 절박감을 느끼고 있는 丁玲이지만 정작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슬픔을 제어하려 하고 있다. 그날의 일을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서술하고 이 글은 20년이란 시간의 파괴력 속에서도 오히려 선연한 당시의 슬픔을 서늘하게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丁玲이 이렇게 슬픔과 상실을 토로하는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꼬박 2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막상 사건이 터졌던 당시의 丁玲은 극진한 감정이 담겨 있는 필치를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胡也頻의 처형이란 개인적으로 극진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건을 다루던 당시의 丁玲은 속수무책, 혼란에 빠져 있으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무던히 발버둥치고 있었다. 그녀의 길은 혼란스런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기록하는 것이었다.

<從夜晚到天亮>은 1931년 4월에 나온 글이다. 胡也頻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두달 만에 쓰여진 작품으로, 주관적인 3인칭 시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작가의 眞人과 眞事임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22) 丁玲: <一個眞實人的一一記胡也頻>, 《丁玲文集, 5卷》 162-163쪽.

작품 속의 그녀(她)는 길을 걷고 있다. 그녀는 낮익은 외투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에서도 저 세상으로 떠난 그의 모습을 찾아냈고, 가난하고 가여운 아들小平도 생각했다. 그러다 백화점 아동복 코너를 배회하다 F부인을 만난다. 그(也頻)가 죽었을 때, 그녀가 정신없이 달려가 문을 두드렸던 그 F(馮乃超)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F부인이 딸아이에게 예쁜 옷을 사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정신없이 전당포로 달려가 돈을 얻고 아이에게 줄 예쁜 옷을 산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죽은 듯이 잠이 들고 새벽에 깨어나 지난 밤의 허망한 감상들을 기억한다.

“얼마나 옷기는 감정인가? 나는 아직도 무의식 속에 살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듯 그렇게 살 순 없어. 자신있게 올바르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돼! 다신 이러지 말자! 이건 정말 가치 없는 일이야!”

그녀는 옷을 바닥에 내던진 채 글을 쓴다. 그러다 다시 바닥에 내팽겨쳐 있는 옷을 보며 탄식한다.

“허위적인 이성아! 너는 人性을 없앨 궁리만 하는구나 …”

“그래, 아직도 내가 틀린 걸거야!”<sup>23)</sup>

그리고 그녀는 계속 글을 쓴다.

그녀로 치환된 丁玲의 의식은 무질서하게 유동한다. 죽은 동생의 기일을 기억했다가 아들小平을 생각하고, 也頻을 생각하고, 그러다 也頻이 죽던 날 자신의 절망적 기억들을 떠올린다. 그러다 F부인이 지난 날의 자신과 같다고 여기고, 그녀를 부러워하고 또한 동정하며 정신없이 아이에게 줄 옷을 산다. 소설은 불안정하게 유동하는 丁玲의 심리적 리듬을 따라 온갖 연상과 감정이 혼란스럽게 의식의 표면 위에 떠오르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과 더불어 丁玲은 자신을 직시하고, 자신을 추스리며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노력은 지난 밤 자신의 감정적 행위에 대한 반성을 동반한다. 즉 감정과 이성의 대립

23) 丁玲: <從夜晚到天亮>, 《丁玲文集, 2》 318쪽 참고.

속에서 이성을 통한 감정의 제어, 이성에 의해 감정의 극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丁玲에게 그것은 지난한 일이다. 혼란스런 감정은 당위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 여기면서도, 그것은 그녀의 살아있는 실체다. 때문에 이 순간 이성은 그녀 자신을 부정하는 ‘허위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시 이성을 허위적인 것이라 여기는 자신을 부정한다. ‘내가 틀렸다’고. 이 ‘내가 틀렸다’는 전제 속에서 그녀의 글쓰기를 계속된다. 따라서 그녀의 글쓰기는 자신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자기부정의 실천 과정이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 한번 삶과 대면하면서 이성으로서 감정을 제어하고, 끊임없는 자문자답 속에서 자기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녀의 출로이자 선택이었다.

글쓰기 자체가 丁玲에게 상황을 객관화시키며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자 하는 이성적 의지의 발로였다면, 이후 자신과 지나치게 밀착된 체험과의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상황을 객관화시키려는 시도는 무척 자연스럽게 보인다. 1931년 7월에 발표된 <某夜>는 바로 그런 작품이었다.

<某夜>는 胡也頻과 25명의 젊은이들이 처형되던 바로 그 날 밤의 광경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군화 발자국 소리에서 시작되어 총소리로 마무리되는 이 작품은 시종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먼거리에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삭풍에 눈발이 휘몰아치는 광경, 젊은 죄수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는 장면, 처형관의 목소리, 확인 점호 소리, 국제 인터네셔널가를 부르는 젊은이들, 마지막 순간 그들의 가슴에서 분노와 상처를 씻어내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들 그리고 생명의 의미, 총소리와 함께 잦아드는 노래소리...

그날 밤의 실제 상황은 고증할 길이 없다. 분명한 것은 胡也頻과 25명의 젊은이들이 무수히 총탄을 맞고 처형됐다는 사실 한가지다. 따라서 이 작품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丁玲의 개연적 상상에 의해 그려지는 허구적 재현이다. 그런데 직전인 <從夜晚到天亮>까지만 해도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그리며 필사적으로 그 감정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丁玲이 <某夜>에서 보여주는 자세는 이미 개인의 감정을 억제하고 제3자의 눈으

로 장면을 객관화시키는 이성화된 모습이다. 철저히 거리를 유지하며 상실과 죽음의 순간을 재구성하고, 거기에 혁명에 대한 신념으로 정화되는 망자의 숭고한 최후의 순간을 그릴 때까지 丁玲은 침착하고 흐트러짐 없는 호흡을 유지한다. 丁玲이 자신 내부의 감정과 정서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희생자들의 형상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객관적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강렬한 개인 정서를 내려놓자 丁玲은 비로소 자아 밖의 대중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었고,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창작에 임하는 태도의 변화, 이야말로 丁玲 내부 변신이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IV. 나오는 글

沈從文은 일찍이 丁玲과 胡也頻의 좌익으로의 방향전향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

그녀(丁玲)의 그 솔직하고 놀라운 이야기(자신들의 근황, 앞으로 미래의 계획 등)를 듣고 나는 정말 기쁘고도 슬펐다. 기뻐던 것은 두 사람이 반년 동안 새로운 이상에 경도되어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슬픈 것은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란 그렇게 좁고 작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삶은 물론 두사람을 강인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무척 보기 좋았다. 그러나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면 역시 생활태도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sup>24)</sup>

위의 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丁玲이 체포된 뒤 죽음을 당했다고 추측하던 1933년에 쓰여졌다. 절친했던 벗에 대한 애도의 정을 듬뿍 담고 있지만, 沈從文은 丁玲이나 胡也頻의 좌익으로의 전향에 대해서만은 시종 비판적이었다. 그것이 결코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이후

24) 沈從文: 《沈從文別集—記丁玲》, 164쪽.

丁玲은 이 글에 대해 재비판하는 글을 써서 자신과 胡也頻의 혁명에 대해 설명<sup>25)</sup>하기도 하는데, 필자가 볼 때 이 두 사람의 상호 비판의 근거에는 삶과 문학에 대한 서로 다른 경력과 이해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沈從文의 문학관을 따로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丁玲의 입장에서 볼 때 沈從文의 서술이 자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느꼈을 이유는 충분하다.

丁玲에게 있어 문학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의 정서적(감성적) 인지적(이성적) 행위적(실천적) 요소의 상호 침투와 길항작용에 의하여 丁玲문학은 자신의 진폭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초기에는 정서적 요소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곧 인지적 요소와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성적 요소에 의해 전자의 비도덕적 비사회적인 부분을 극복하려 했고, 나아가 행위 속에서 감성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실천을 시도하고 있었다. 표면적인 인상으로 볼 때, 丁玲의 문학이 개인의 감수성을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丁玲의 문학을 沈從文이나 夏志清 처럼 ‘단지 치기어린’ ‘비이성적 탈출행위’로 평해 버린다면 그 가운데 작가가 치러야 했던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성찰과 조정의 과정은 아무 의미 없이 단번에 매도되고 마는 것이다.

丁玲문학의 본령이 정서적 인지적 행위적 요소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하고 재성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丁玲의 사람됨 결국 자신의 도덕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는 문제와 직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도덕성은 개인의 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丁玲이 구축한 도덕성이 이후 그녀의 문학에서 또한 이후 延安의 문학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탐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25) 丁玲: <也頻與革命>, 《丁玲文集, 5卷》 165-168쪽.

< 參考文獻 >

- 丁玲, 《丁玲文集》 1卷~6卷, 湖南人民出版社, 1984.
- 丁玲, 《丁玲集外文選》, 人民文學出版社, 1984.
- 袁良駿 編, 《丁玲研究資料》, 天津人民出版社, 1982.
- 孫瑞珍 編, 《丁玲研究在國外》, 湖南人民出版社, 1985.
- 夏志清, 《中國現代小說史》, 傳記文學出版社, 1979.
- 周芬娜, 《丁玲與中共文學》, 成文出版社, 1980.
- 宗誠, 《風雨人生—丁玲傳》, 中國文聯出版社, 1988.
- 王搖, 《中國新文學史稿(上, 下)》, 新文藝出版社, 1954.
- 尾坂德司, 《中國新文學運動史—政治と文學の交點》, 法政大學, 1957.
- 尾坂德司, 《中國新文學運動史(續)》, 法政大學, 1960.
- 沈從文, 《沈從文別集—記丁玲》, 岳麓書社, 2002.
- 周作人, 《周作人全集》, 南燈文化, 1992.
- 袁世全, <丁玲與人稱代詞的定型化傾向>, 《中國現代文學研究總刊》, 1999年 제3기.
- 吳敏, <試論40年代延安文壇的'小資產階級'話語>, 《中國現代文學研究總刊》, 2004年賀 제2기.
- 賀桂梅, <知識分子, 革命與自我改造>, 《中國現代文學研究總刊》 2005年 제2기.
- 宗元, <在左翼文學與女性的雙層空間中奮力開掘>, 濟寧師範學報, 2007.
- 張祖立, <丁玲'向左轉'過程中的一次困惑>, 東北師大學報, 2007.
- Yi-tsi. Feuerwerkew,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조성환, <丁玲소설에 나타난 글쓰기의 의미>, 중국현대문학13호, 1998.
- 김미정, <丁玲研究—문학과 삶의 관계>,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89.

## &lt; 中文提要 &gt;

1930年代初期丁玲文學的‘向左轉’，是丁玲研究的極其重要問題之一。本文對於這問題，試圖以丁玲初期作品(夢珂·莎菲女士的日記)到丁玲轉換時期一系列的作品作為分析對象，從成爲一個知識分子的情緒(感情)的·認知(理性)的·行爲(實踐)的角度，探詢一種闡釋的可能性。

丁玲初期作品主人公們(夢珂·莎菲)都是建基于個人主義基礎上的‘現代化個人’。不過她們把自己推向了一種完全與社會對立的絕境，經受‘生與死 靈與肉理性與感情’的自我分裂的苦痛，并浸溺于一種‘自我毀滅的感傷主義’的情調之中。這個自我的構成，在于理性與情緒的二項對立的結構方式。丁玲加入左聯以後的狀況也是一樣，‘革命與戀愛’的衝突敘述模式中，人物的主體結構並沒有發生變化，只不過用‘革命’填充了‘理性’占有的結構性位置。但是連如此的狀況下，丁玲承認了會以讀書和學習來建設出當爲世界，也把感性的因素中存在的非道德非社會性成分看做克服對象，爲了被理性的因素所控制而努力。進一步，她試圖以行爲(擺脫掉個人感情的創作態度)來證實她自我的重新誕生。本文對於這一系列過程的苦痛和反思與調整之複雜性曲折性，加以思索與解釋。

주제어 : 丁玲, ‘向左轉’, 感情與理性二項對立, 情緒·認知·行爲因素, 道德性